

경제 아직도 '한겨울'

수출 빼고는 죄다 부진...하강 탈출 당분간 힘들 듯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전망

서비스업활동 동향을 끝으로 올해 1월 경제 관련 지표가 모두 발표됐지만 올해 성장률이 3% 후반~4%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처럼 수출을 빼고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출발을 보였다.

고용은 취업자 증가 수가 정부의 목표치인 30만명대에 훨씬 못 미쳤고 생산과 소비의 증가는 둔화하고 있으며 공공요금 인상 등이 대기하고 있어 체감물가는 불안하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수출은 좋지만 생산과 소비 등 내수 쪽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기 하강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크게 나빠지지

않겠지만 하강 추세를 벗어나기도 힘들다"고 전망했다.

◇경기둔화 진행, 생산·소비 부진=현재 경기 상황은 통계청이 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할 당시 그대로 드러났다. 통계청은 현재 경기에 대해 "지난해 11월을 정점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기와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개월 연속 하락했고 조업일수를 적용한 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1.4%에 불과해 20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1월 소비자 판매 증가율은 3.1%

로 지난해 7월의 -0.8% 이후 가장 낮았고 소매업 매출은 2.2% 줄어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월 설비투자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16.0% 늘어나 지난해 9월의 17.7%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취업자 증가 5개월째 20만명대=1월 취업자 수는 2천272만9천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25만8천명 늘어나는 데 그쳐 취업자 증가 수가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저조했다. 취업자 증가 수는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20만명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537만명으로 최대를 기록했고 구직단념

자는 13만9천명으로 17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정부는 올해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벌써부터 힘들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수출은 호조, 경상수지 적자전환=지난해 우리 경제를 유지했던 수출은 올해 들어서도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들어 지난 2월까지 수출은 545억 9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0% 증가하면서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환율·유가 안정,美경제·차이나쇼크 우려=환율과 유가 등 대외 요인들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고 중국발 불안 요인까지 전세계 증시를 뒤흔드는

등 새로운 위험리스크 요인이 등장했다. 미국의 작년 4·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고 '중국발 쇼크'로 전세계 증권시장이 요동치는 등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미국 경제가 안정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경제대통령'으로 불렸던 앨런 그린스판 전 FRB 의장은 미국 경기의 침체 가능성을 잇따라 언급하면서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물가 안정속 체감물가 우려=올해들어 지난달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인천, 경기도, 전북, 경북을 비롯한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빠른 이달부터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등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신학기를 맞아 대학과 인시학원들의 등록금과 학원비도 꿈틀하고 있다. 공공요금과 교육물가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하강하는 상황에서는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가 불안해질 수 있다.

이종태기자 jtee@kwangju.co.kr

가짜 실업자 '바글바글'

작년 1만여명 42억 부정수급

실업자가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받은 '가짜 실업자'가 지난해 42억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수는 지난해 1만1천754명으로 전년의 9천743명보다 2천 11명(20.6%) 증가했다. 부정 수급자들이 타년 부정 수급액은 42억700만원으로 전년의 38억4천500만원에 비해 3억6천200만원(9.4%) 늘었다.

부정 수급자는 2001년 4천433명에서 2006년 1만1천754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부정 수급액도 2001년 14억4천600만원에서 작년에는 42억700만원으로 증가했다.

'가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일용근로자 등 실업급여 수급자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다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전산시스템 연계 등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적발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3월 중으로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주간'을 운영하는 등 부정 수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LG전자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최고 권위의 가구 인테리어 전시회 '2007 FIDEXPO(Furniture Interior Design EXPO)'에 참가해 71인치 금장 PDP TV 등을 선보여 러시아인들을 매료시켰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약 100여개의 가구 및 인테리어 전문 업체들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워런 버핏의 투자 대상 기업은...

신영증권 분석, 종근당 등 12개사 관심 집중

"워런 버핏이 POSCO 외에 관심을 두는 국내 상장기업이 있다면 어디일까?"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 워런 버핏의 투자사실 공표 이후 국내에서 POSCO가 급등세를 보이며 따라 버핏이 주창한 우량종목 선별기준에 대한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워런 버핏의 투자 종목 선별 기준은 또 다른 가치투자의 대가 벤저민 그레이엄이 제시한 수치상 평가기준과 달리 독점력과 경영진에 대한 평가기준 등 질적 요소를 중시하는 특징을 갖는다.

4일 신영증권이 분석한 결과에 따라

면 버핏의 질적 요소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의 종근당과 현대미포조선, 대우제철 등 3개사, 코스닥시장의 메가스터디와 신성필타테크, 티에스앤티, 성일텔레콤, 더존디지털웨어, 하나투어, 현진소재, 테크노세미콘, 피에스케이 등 9개사를 합쳐 모두 12개사였다.

김지희 연구원은 "워런 버핏의 우량종목 선별 기준의 핵심은 독점성과 수익의 안정성"이라며 "이들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이 3년(2004~2006년) 연속 15%를 초과했으며, 2004년 이후 5년간 연평균 주당순이익(EPS) 증가율(추정치 포함)이 매년 20% 이상 증가한 종목들"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들은 수익률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 지난해 초 이후 2월까지 평균 54.8%의 수익률을 달성, 시장 전체의 수익률인 1.9% 대비 뚜렷한 초과수익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회장선출 회의 연기

전경련 내분 조짐

전국경제인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사실상 재추대됐던 강신호 현 회장이 지난 달 6일 스스로 이를 단념하겠다고 밝힌 후 1개월여가 지났지만 새 회장 후보를 찾는 작업은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경련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총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갈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오는 8일로 예정됐던 회장단 회의를 1주일 가량 연기할 계획"이라고 4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사이에 강 회장과 조건호 상근부회장, 원로자문단이 회장단 구성원들과 연쇄 접촉해 회장단 회의에서 단일 후보를 추대하기 위한 사전조율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2주일여 만에 회장단 내 갈등을 봉합하고 새 후보를 합의추대하는 일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30대 기업 사외이사들

'찬성 거수기'

한국을 대표하는 30대 상장기업 사외이사들이 찬성 '거수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12월 결산 30대 상장사들의 사외이사 199명은 작년 모두 5천263건의 의결에 참여해 15건에 대해 서면 반대 의견을 제시, 반대율이 0.29%에 불과했다.

POSCO와 KT&G, 대우조선해양 등 3개 기업에서만 각각 8건과 6건, 1건 등 15건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 또 KTF는 사외이사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사회규정 개정안과 임원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개정 등에 대한 수정 찬성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비정규직 은행창구원 모집에 서울대, 연·고대 석박사 몰려

주요 시중은행들의 창구 비정규직 채용 경쟁률이 크게 오르는 등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및 후생복지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데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까지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2일까지 영업점 400여명 채용에 대한 지원서를 접수받을

결과 1만4천200명의 지원자가 몰려 3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몰려 모집에선 박사 학위 소지자 3명, 석사 234명을 비롯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말하는 '빅3' 대학에서도 30여명의 지원자가 나왔다.

5일 마감예정인 하나은행의 전업주부 창구직

채용에도 2일 현재까지 1만1천600여명이 몰려 32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은행은

연령과 학력 제한없이 전업주부 36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채용 인원은 '빠른 창구'에 배치되며 임금과 공과금 수납, 통장정리, 이월 재발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들은 자택 근처 영업점에 배치되며 8시간 근무제 이외에 4시간 선택 근무제(오전 또는 오후)도 선택할 수 있다. 최근 비정규직 3천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리은행의 전환 작전 마지막 비정규직 공채에도 1만300여명이 몰려들어 2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체감 '젊은 백수' 15.4%

일자리 감소하는데 학력인플레로 눈 높아져

현대경제연구원

청년실업이 경기와 무관하게 고착되고 있다. 취업준비자까지 감안한 우리나라의 체감 청년실업률은 15.4%에 이른다.

청년실업이 지속되는 이유는 산업 고도화에 따라 청년을 위한 관망은 일자리는 줄고 있는 반면, 대학 졸업자는 급증해 직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학력인플레가 청년실업을 부추긴다'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대로 하락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면서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 12%까지 치솟았던 청년 실업률은 2003년 이후 7.9~8.3%의 높은 수준에 고착됐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최근 청년실업은 경기적인 요인이나 인구변화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2000년 이후 전체 실업률은 소폭 변동했지만, 청년실업률은 8%대를 유지했고, 전체 인구와 경제활동인구에서 청년층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청년실업률은 그대로였다"고 지

적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현재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돼 있는 취업준비자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체감 청년실업률은 15.4%에 이른다"면서 "여기에 구직포기자까지 포함하면 청년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서 청년실업률은 19.5%까지 급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청년실업이 이같이 고착된 이유는 산업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청년층 고학력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출생자수 대비 일반대학 입학률은 1990년 19.2%에서 지난해 53.3%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반면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돼 관망은 일자리 수는 2002년 71만3천961명에서 2005년 63만2천537명으로 8만개나 줄었다"고 말했다.

즉 고학력의 눈높은 청년층은 늘어나는 데, 이를 위한 관망은 일자리는 줄어들어 청년층 노동수급에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아파트·빌라 등 모든 공동주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해야

앞으로 모든 아파트와 빌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중 이 같은 방향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2005년 7월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하고 이 후 복리후생규정 개정 등에 대한 수정 찬성의견을 냈다.

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당장 시행하기에는 준비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뒤 2010년부터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공공건물이나 공공이용시설 사용시 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내 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토록 돼 있는 것을 노인과 임산부에게도 적용,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①유로넷	[주5일/정규]SK텔레콤(광주)114 상담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3/07	02-780-9595
②진어소시에이츠	[인사/노무관리] 정규직 대졸 경력사원 모집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3/07	011-1796-4814
③에네스건설	2007년 에네스건설 경력사원 모집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3/07	062-572-5500
④코팩스	(주)코팩스 2007년 상반기 정규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8	061-333-8668
⑤원시스템	인프라 구축, N/W 보안, 방화벽 경력자 구함	초대졸/경력4년	회사내규	03/08	062-384-1161
⑥오에이전자	총무부 여직원 모집	초대졸/경력1년	1200~1400	03/08	062-971-4800
⑦컴이즈아	광주지역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컴퓨터 교사 모집	대졸/경력무관	1400~1600	03/09	062-233-0066
⑧뉴스엔에드	솔루션/운영사이트 웹디자이너 모집	고졸/경력3년	1800~2000	03/09	062-226-6862
⑨태정산업	[광주/창원/중국] 신입사원 모집공고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9	062-953-2300
⑩수호시스템	광주신세계 백화점 보안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3/10	062-360-1113
⑪현보하이텍	구매자재 전산등록 여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0	062-536-1560
⑫행성테크	총무/영업지원 여사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3/10	062-956-9890
⑬문실내건축	인테리어 도면작성 및 현장 관리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3/15	062-682-0419
⑭한진실업	현장 조립생산 업무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3/15	062-953-4702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